

배포 2025. 4. 30.(수) 08:30

보도시점

(인터넷) 2025. 4. 30.(수) 12:00

(지면) 2025. 5. 1.(목) 조간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 발표

-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학교·교원·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 정부·민간이 함께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캠페인'으로 사이버폭력 예방 문화 조성
-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개편하여 실효성 높이고 학교폭력 재발 방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5월 1일(목), 제20차 학교폭력대책 위원회(김경성 민간공동위원장 주재, 4.21)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이하 '5차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계획

이번 5차 계획은 현장의 의견과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교육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위기 및 파·가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의 5대 정책영역 15개 과제로 구성하였다. 영역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교원·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생·교원·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확대한다. 대상별로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 콘텐츠로 제공하여 학교에서 활용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2027년부터 전환학년인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어울림학기제를 시범 운영해 '어울림+'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어울림과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하여 학생의 정서적 성장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 어울림 더하기: ①기존의 어울림에 대상, 내용, 방법 등을 '더한다'는 의미와 ②교육3주체가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참여와 실천을 '더 한다'는 중의적 의미를 지닌 프로그램

< 어울림+(어울림 더하기) 개요 >

	기존 어울림	추가·확대
대상	학생	학생, 교원, 학부모
내용	학교폭력 이해 및 대처, 신고 절차, 공감 의사소통 등 어울림 6대 역량	(학생) 자기인식, 공동체 관리 등 사회정서 역량 (교원) 학생 간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등 생활지도 전문성 (학부모) 자녀 이해와 소통 역량
자료형태	지도안, PPT, 학습지 등	영상, 게임, 메타버스 등 디지털 콘텐츠
학습방식	교사 중심, 강의형	대상자 맞춤형, 체험형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된다. 상담·치료,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 등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활동에 관한 법률 근거(「초·중등교육법」)가 추가됨에 따라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관리자·교원(신규·저경력)의 생활지도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생활지도 우수 교원을 위한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학부모가 학교폭력 예방의 동반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소통 기반을 확대한다. 유관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직장연계 학부모교육을 실시하고,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 상담과 정보 공유를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폭력 없는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문화 책임규약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2029년까지 2,000개교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플랫폼 기업 등 민간과 함께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 범부처 협의체*에 플랫폼 기업 등이 참여하여 사이버폭력 차단·탐지 기술개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점검 등 협력과제를 함께 발굴해 나간다. 또한, 사이버폭력 예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매년 대국민 포럼을 개최하는 등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Strategic Actions Fostering E-Safety)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 과기부, 법무부, 문체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사이버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폭력 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 스마트폰 사용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차별화된 조치를 마련하고, 모든 시·도 교육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불법영상물 긴급삭제지원체계(하라인) 구축을 확대*한다. 아울러 학교급별 디지털 역량교육을 통해 올바른 기술 활용 능력과 책임감을 함양하여 역기능을 예방하고,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 ('24) 11개 시·도교육청 → ('25) 17개 시·도교육청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확대하고 사안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내년부터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학생 간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교육적 회복 노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의 관계회복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관계개선 지원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담당교원에 대한 연수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상담복지, 화해·조정, 관계회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화해와 관계회복 중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
('24) 2,527명, 5,531건 지원 → ('29) 5,000명, 10,000건 지원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의 객관성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사안처리 지원을 위한 교원 자문(컨설팅)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전담조사관 대상 교육과정도 수준별로 개발한다. 또한, 가해학생 조치 사례를 분석한 안내서를 보급하여 위원회별·지역별 심의 결과의 편차를 줄일 계획이다.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개편하겠습니다.]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학교 구성원이 협력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하여 위기·피해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 퇴직교원·경찰, 심리상담가,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학교나 피해학생이 희망하는 장소로 방문하여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전문기관과 연계
('24) 1,168명, 3,140건 지원 → ('29) 2,400명, 10,000건 지원

학교폭력 양상 변화 등에 대응하여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개편하고, 특별교육을 전문화하여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한다. 변화하는 교육환경, 사안의 특성과 중대성을 반영한 조치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출석정지(6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법무부·경찰청 등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특별교육 실시 방안도 마련한다.

* ('25~) 정책연구 및 의견 수렴 → ('27~)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통한 조치 개편

현행 조치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서면 사과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교육감·지자체의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실태조사를 개편한다. 또한, 지역자원(지역기관·지역대학 등)을 학교폭력 관련 상담·연구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경찰청-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역별 학교폭력 특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경보'를 발령*하여 가정과 학교에 예방 및 대응 정보를 제공한다.

* (사례) 서울경찰청-서울교육청이 학교폭력 발생 관련 정보를 가정·학교에 알려주는 '스쿨벨' 운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일상적인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5차 기본계획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주요 정책 전후 비교
2. 제5차 기본계획 비전도(세부 추진과제 포함)
3.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4.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표

【별첨】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5~'29)

담당 부서	학생건강정책국 학교폭력대책과	책임자	과 장 박해원 (044-203-6972)	
			서기관	정민재 (044-203-6975)
			연구관	최소영 (044-203-6987)
			사무관	이유림 (044-203-6978)
			사무관	오단비 (044-203-6546)

붙임1 주요 정책 전후 비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교육3주체의 예방역량을 강화하고 신뢰의 학교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학생 대상 교과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도입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적근거 마련('23)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교육 참여기회 부족	'학교문화 책임규약' 전국 초·중·고 82% 실천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 '어울림*(어울림 더하기)' 제공	상담·치료, 개별학생지원 등 학생생활지도 관련 행·재정적 지원 확대	직장교육 연계, '함께학교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형태의 학부모상담·정보 제공	· 모든 학교에서 100%실천 · '거점학교' 2,000개교 운영

02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법부처 협력을 통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추진	폭력유형·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존 조치의 실효성 부족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감있게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 미흡
법부처, 플랫폼 기업, NGO 등 민간-정부 Digital SAFE 캠페인 추진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조치 차별화 등 조치 전면 개편	학교급별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 (디지털 안전과 윤리, 시민성, 리터러시)

03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고, 사안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초·중·고 동일한 사안처리 절차 적용	모든 교육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총 176개) 전담조사관 도입('24, 2,280명)	모든 교육지원청에 관계개선 지원단 신설('24) 2,527명, 5,531건 지원	지역별·심의위원회별 심의결과 편차 존재
초등학교 1·2학년 관계회복 숙려기간 시범운영('26~'27)	· 학교폭력제로센터에 학교 컨설팅 기능 추가 ·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관계개선 지원단 2배 확대('29) 5,000명, 10,000건 지원	조치 판정기준 안내로 심의결과 객관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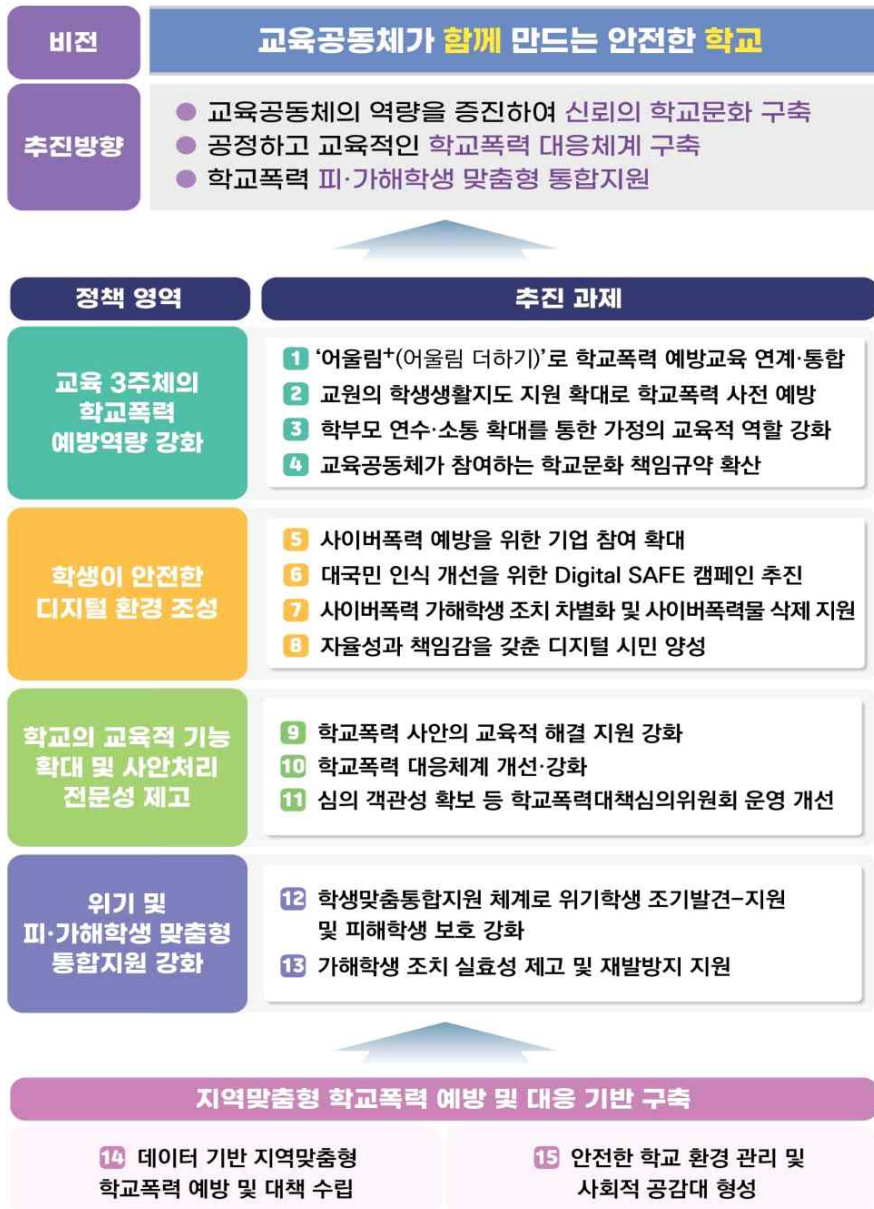
04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하고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개별적·분절적으로 위기학생 발견·지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도입('24) 1,168명, 3,140건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기관 부족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학교구성원이 함께 위기학생 조기발견·지원	전담지원관 2배 확대로 상담·치료, 법률 지원 매칭('29) 2,400명 10,000건 지원	법무부 등 연계 가해학생 특별교육 확대 ※ 청소년비행예방센터('24) 1,074건→('29) 5,000건

05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청-지자체 협력 강화 및 지역맞춤형 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개편	모든 지역에서 주기적 학교폭력 경보 발령 (학교·가정에 정보 제공)
---	---------------------------------------

붙임2 제5차 기본계획 비전도



붙임3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추진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기간/방법) '24. 9. 23 ~ 10. 22. (4주),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
- (조사대상)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중 4% 표본 (약 21만 명, 참여율 78.8%(약 16.7만 명 참여))
- (조사내용) '24년 1학기 시작부터 응답시점까지의 학교폭력 목격·피해·가해 경험 등
- (조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조사개발, 조사수행 및 분석)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온라인조사 시스템 운영)

□ 주요 조사결과

1 피해 응답현황

- 전체 피해응답률은 2.1%이며,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3.8%, 중학교 1.6%, 고등학교 0.6%로 나타났다.

※ ('23년 2차조사 결과) 전체 1.7%, 초등학교 3.0%, 중학교 1.2%, 고등학교 0.4%

【2차 표본조사 피해/가해/목격 응답률】 【2차 표본조사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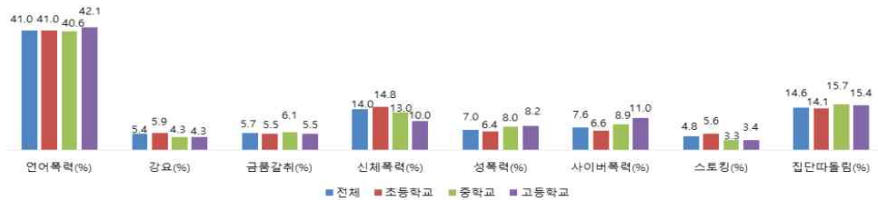
※ '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1차 전수조사만 실시

- **피해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41.0%), 집단따돌림(14.6%), 신체폭력(14.0%), 사이버폭력(7.6%), 성폭력(7.0%), 금품갈취(5.7%), 강요(5.4%), 스토킹(4.8%) 순이었다.

-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교는 '신체폭력',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집단 따돌림'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 ('23년 2차조사 결과) 언어폭력(40.9%), 신체폭력(15.5%), 집단따돌림(12.9%), 사이버폭력(6.8%), 스토킹(6.5%), 금품갈취(6.1%), 성폭력(6.0%), 강요(5.4%) 순

【 피해유형별·학교급별 피해응답률(%) 】



- **피해 후 대응과 관련하여 피해 후 피해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비율은 85.2%(미신고 14.8%)로,

- **피해받은 사실을 알린 사람**은 '나의 보호자나 친척'(34.4%), '학교 선생님'(29.5%), '친구나 선·후배'(14.6%), '학교 상담실 선생님'(6.4%),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어울림 앱'(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목적 응답현황

- **전체 목적응답률**은 6.0%이며, 학교급별 목적응답률은 초등학교 9.0%, 중학교 5.6%, 고등학교 2.1%로 나타났다.

※ ('23년 2차조사 결과) 전체 4.9%, 초등학교 7.6%, 중학교 4.4%, 고등학교 1.6%

- **목적 후 행동**과 관련하여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비율은 64.4%이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34.5%로 나타났다.

※ 피해학생을 돕거나 주위에 신고한 경우 대처방법으로 '피해학생을 위로하고 도와주었다'(30.1%), '가해자를 말렸다'(18.1%), '주변 어른들에게 알리거나 신고했다'(16.2%) 순으로 응답

3 가해 응답현황

- **전체 가해응답률**은 0.9%이며, 학교급별 가해응답률은 초등학교 1.6%, 중학교 0.7%, 고등학교 0.1%로 나타났다.

※ ('23년 2차조사 결과) 전체 1.8%, 초등학교 3.6%, 중학교 0.9%, 고등학교 0.2%

-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가해의 주된 이유**를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34.1%), '상대방이 먼저 괴롭혀서'(19.7%), '상대방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13.6%) 등의 이유로 가해 이유를 인식했다.

- 학교폭력 가해경험자 중 **가해를 중단한 비율**은 80.0%이며,

- **가해 중단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말과 행동이 나쁜 것임을 알게 되어서'(29.8%), '선생님과 면담하고 나서'(17.2%),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받고 나서'(11.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4 대책의 효과성

- **효과적 예방활동**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교육'(26.5%), '학교 안과 밖에 CCTV 설치'(19.8%), '인성교육, 스포츠·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18.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효과적 예방교육 방법**으로는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25.8%), '방송/비디오/동영상 시청을 통한 예방 교육'(24.6%), '학생 참여 활동'(23.6%) '수업내용에 포함된 예방교육'(20.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학생들에게 필요한 예방교육 내용**으로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27.3%),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15.9%), '피해학생을 도와주는 방법'(15.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붙임4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결과표

□ 피해 응답 현황

조사 내용		주요 결과표								
피해 응답률	구분	'19년 2차	'21년 2차	'22년 2차	'23년 2차	'24년 2차				
	피해응답률(%)	1.2	1.0	1.6	1.7	2.1				
※ '21~'23년 1차 조사에 전복교육청은 미참여(자체 실시), '20년 2차 조사는 코로나19로 미실시										
참여율	구분	'19년 2차	'21년 2차	'22년 2차	'23년 2차	'24년 2차				
	참여율(%)	90.7	87.7	86.0	72.6	78.8				
피해 유형별 비율(%)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언어 폭력	강요	금품갈 취	신체 폭 력	성폭력	사이버 폭력	스토킹	집단 따돌림	
	전체	41.0	5.4	5.7	14.0	7.0	7.6	4.8	14.6	
	초	41.0	5.9	5.5	14.8	6.4	6.6	5.6	14.1	
	중	40.6	4.3	6.1	13.0	8.0	8.9	3.3	15.7	
	고	42.1	4.3	5.5	10.0	8.2	11.0	3.4	15.4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 (%)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나의 보호자나 친척	학교 선생님	학교 상담실 선생님	학교 폭력 신고함이 나 학교 익명게시 판	친구나 선·후배	학교 전담 경찰관 경찰	117 학교폭력 신고 센터 어플리케이션	학교 밖 상담 기관	아무에게 도 알리지 않음
	전체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 (91.9)								8.1
		34.4	29.5	6.4	1.1	14.6	2.0	2.4	1.6	
	초	36.8	27.3	4.8	1.2	13.7	1.6	2.5	1.2	10.8
	중	31.4	33.6	7.7	0.9	15.5	2.1	2.1	2.3	4.5
	고	28.1	30.1	12.9	1.0	16.9	4.3	2.5	2.0	2.2

□ 목격 경험

조사 내용		주요 결과표					
목격 응답률	구분	전체	초	중	고		
	비율(%)	6.0	9.0	5.6	2.1		
목격 시 감정 (%)	구분	도와줄 수 없어 속상했다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었다	가해자에게 화가 났다	나도 당할까봐 무서웠다	피해학생이 방어하지 못하는 게 답답했다	별 생각이 없었다
	전체	15.2	30.6	22.6	14.2	5.8	11.6
	초	13.7	36.9	21.3	14.6	5.0	8.6
	중	17.3	22.6	23.8	14.6	6.6	15.1
	고	16.7	22.0	27.0	9.9	7.9	16.5

조사 내용	주요 결과표				
목격 후 행동(%)	구분	전체	초	중	고
	피해학생을 위로하고 도와주었다.	30.1	31.1	28.2	31.1
	가해자를 말렸다.	18.1	21.0	15.3	10.5
	주변 어른들에게 알리거나 신고했다.	16.2	16.3	15.6	18.2
	나도 같이 피해 학생을 괴롭혔다.	1.1	1.0	1.3	1.2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34.5	30.6	39.5	39.0

□ 가해 경험

조사 내용	주요 결과표				
가해 응답률	구분	전체	초	중	고
	비율(%)	0.9	1.6	0.7	0.1
가해 이유(%)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전체	초	중	고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34.1	32.6	36.6	44.2
	화풀이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7.2	7.4	6.9	7.6
	나의 보호자나 선생님께 관심을 받고 싶어서	1.6	1.4	1.9	1.3
	강해 보이려고	3.4	3.3	3.5	3.9
	친구나 선·후배가 시켜서	3.1	3.0	3.3	3.5
	다른 친구나 선·후배가 하니까	4.0	4.0	4.1	1.8
	상대방과 오해가 있거나 의견이 달라서	13.4	13.2	14.1	11.7
	상대방이 먼저 나를 괴롭혀서	19.7	22.6	14.3	7.6
	상대방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13.6	12.6	15.4	18.5
가해 중단 이유(%)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전체	초	중	고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말과 행동이 나쁜 것임을 알게 되어서	29.8	31.8	26.8	23.8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받고 나서	11.2	12.6	9.0	7.5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나서	17.2	16.8	18.6	12.4
	나의 보호자가 걱정하거나 혼내서	10.1	10.2	9.7	11.3
	상대방과 화해하고 친해져서	12.7	13.9	11.0	6.4
	상대방이 싫다고 해서	8.4	8.5	7.9	11.6
	친구나 선·후배들이 말려서	1.5	1.4	1.5	2.7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서	9.1	4.8	15.4	24.3

□ 학교폭력 대책의 효과성

조사 내용	주요 결과표				
효과적 예방활동 (%)	구분	전체	초	중	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교육	26.5	32.5	24.4	20.6
	인성교육, 스포츠 활동, 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	18.8	19.8	19.1	16.9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	10.9	10.4	11.1	11.2
	학교 상담실 선생님의 활동	6.4	5.9	6.9	6.3
	학교전담경찰관의 활동	13.3	11.0	13.6	16.3
	학생보호인력의 활동	3.2	3.0	3.1	3.6
	학교 안과 밖에 CCTV 설치	19.8	16.1	20.7	23.8
	기타	1.1	1.2	1.0	1.2
효과적 예방교육 방법 (%)	구분	전체	초	중	고
	수업내용에 포함된 예방 교육	20.8	23.5	20.4	17.6
	나와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	25.8	28.8	22.2	26.4
	방송/비디오/동영상 시청을 통한 예방 교육	24.6	22.7	26.8	24.2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	23.6	21.6	24.8	24.6
	종이나 책으로 된 교육자료	5.2	3.4	5.8	7.2
필요한 예방교육 내용 (%)	구분	전체	초	중	고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27.3	33.0	25.8	21.3
	피해학생을 도와주는 방법	15.8	18.1	14.6	14.2
	가해자를 말리는 방법	15.0	16.0	15.0	13.6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선도조치	15.3	7.8	18.5	21.7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	15.9	14.0	15.8	18.9
	나와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화하는 방법	9.7	10.0	9.5	9.6
	기타	0.9	1.1	0.8	0.8